데스크 시각

광주비엔날레 '모두의 울림'이 되려면

박 성 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군대를 제대한 무렵이었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92년 2월께로 기억한다. 초봄이라 하기에는 한기가 남아 있어 제법 추운 날씨였다. 대학 동기가 부친이 회갑을 맞았다고 했다. 친구의 고향은 고흥이었다, 가까운 대학 동기들 몇이 물어물어 시골로 내려갔다. 도착한 친구 집에는 마당 가득 사람들이 있었고 거나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회갑연은 동네의 중요한 잔치 가운데 하나였다. 평생 농사를 지었던 친구 아버지는 4남매를 모두 광주로 유학 보낼 만큼 열심히 사신 분이었다.

판소리 비엔날레 형식에 차용

잔치 분위기가 왁자지껄 무르익어갈 무렵, 친구 아버지 동년배로 보이는 어르신이 앞으로 나오셨다. 좌중을 잠시 정리하더니 "오늘 회갑을 맞은 주인공에게 소리 한 소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청을 하셨다. 축하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박수를 쳤다. 친구 아버지는 잠시 주춤하시더니 이내 마당 한가운데로 나오셨다. 동네사람 누군가가 대청마루에 놓여 있는 북을 가져왔다. 이윽고 친구 아버지가 '흥부가' 한 대목을 불렀다. 그런데 웬걸, 수준이 기대 이상이었다. 평생 농사만 짓느라 소리학교 같은 곳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을 터인데, 꺾임이나 떨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사람들은 중간 중간 "얼쑤"라는 추임새를 넣었고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아름다운 잔치의 한 장면이었다. 아니 신명의 한 판이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월 7일 개막한다. 판소리를 모티브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소리의 고장인 남도의 문화적 감수성과 DNA가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된다. 이번 주제는 '판소리-모두의 울림'. 우리의 전통 음악인 판소리를 은유로 인류 보편적 현안 문제를 탐구한다는 게 기획 의도인 것 같다.

니콜라 부리오 감독은 지난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판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땅과 관련된 장르라는 특성 때문"이라며 "지역과 지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판소리를 비엔날레 형식에 차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은 한국적인 것을 모티브로 세계 보편성의 미학을 다채롭게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향후 공간적 조건과 인류세를 반영하는 작품들이 어떻게 구현될 지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는 우리의 전통 음악이자 고전문학이며 연극이다. 다양한 장르로 포괄되는 것은 그만큼 판소리의 특질인 개방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자가 고수 장단에 맞춰 노래를 한다는 면에서는 음악이며, 민담이나 설화 등이 책으로 엮어진 결과물로 볼 때는 문학에 해당한다. 또한 판소리 광대들이 연행의 형태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관점에서는 극예술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판소리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 기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다. 학자들은 17세기 후반 기층 민중의 삶과 정서를 토대로 시작됐다고 본다. 그러다 18세기 양반계층은 물론 이후 흥선대원군을 비롯한 왕족에까지 향유층이 확대되면서 판소리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예술로 자리를 잡았다. 당시 하층민에서 시작됐던 판소리가 최상계층인 왕족들까지 즐기는 대중 장르가 됐던 것은 보편성, 개방성 등 다양한 요인이 결부됐기 때문일 것이다.

언급한대로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상정했다. 판소리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각적 형상화를 특정 공간 내에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

올해로 129년 역사를 자랑하는 베니스 비엔날레(4월20일~11월 24일)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상 최초 남미 출신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를 총감독으로 선임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방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의 강렬함이 인상적이다. 페드로사 감독은 주류와 규범 뒤에 가려진 이방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난민이나 외국인 등 지정학적 개념을 뛰어넘는 어디에나 있는 경계인, 아웃사이더를 바로 이방인으로 봤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일 수 있으며, 환대받지 못한 모든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수렴될 것이다.

마당으로 대변되는 공동체정신

그렇듯 베니스비엔날레는 보편성, 개방성, 특수성을 아우르는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의 '판소리' 또한 지역의 특수성과 세계무형문화유산이라는 보편성을 절묘하게 융합한 주제다. 전시와 프로그램 등 하나하나의 구슬을 어떻게 잘 꿰어 가치있는 보석으로 만드느냐는 광주비엔날레의 몫이다.

오래 전 친구 아버지의 회갑잔치 한 장면을 떠올려본다. 겨울의 끝자락, 손을 불어가며 시골 마당에 모인 아이들과 아저씨와 아주머니, 그리고 허리 굽은 노인들이 "얼쑤" 추임새를 넣어가며 불렀던 판소리 한 대목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것의 울림은 여느 악기, 여느 가수의 노래에 비할 바 아니다. 광주비엔날레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마당'으로 대변되는 우리 고유의 공동체정신이 아닐까.

은펜칼럼

GB 전시관 설계작 논란에 대한 시선

박 홍 근
건축사

도시에서 삶의 지형을 바꾸는 것 중 하나는 건축물이다. 그중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 예술 관련 건축물의 역할은 매우 크다. 대규모로 투자되고 상징성과 공공성, 지역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광주 비엔날레(Gwangju Biennale·GB) 전시관 당선작 선정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지만, 이면에는 당선작의 특별함과 자랑거리(?)가 될 '콘텐츠가 없다'로 들린다. 즉 세계적 건축가 설계, 독보적 디자인, 언론의 극찬과 관심 등등.

당선작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역 미술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어떤 생각일까.

첫째, 일상의 장소가 아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인가? 목적을 가진 이벤트 장소인가? 문화시설들은 보통의 삶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 중인 부지는 대중교통과 보행, 야간 접근성이 취약하다. 행사가 있을 때는 어찌저찌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과 관광객은 큰마음을 먹어야 갈 곳이다. 많은 사람이 산책하듯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의 장소였으면 어떠했을까. 당연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위치'가 경쟁력의 반이다.

둘째, 독특한 디자인 경쟁력이 없다. 행사용 공간을 만들 것인가? 광주 대표 건축물을 만들어 행사를 치를 것인가? 방향에 따라 결과는 다르다. 행정기관은 주어진 예산과 기간내에 성실히 행정업무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사용 건물 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결과물은 얻지 못했다는 평이다. 지역사회는 광주를 상징하고, 비엔날레의 아이콘이 될 독특한 건축 작품을 원했다.

셋째, 설계자가 유명(有名)하지 않다. 설계 건축가(사)가 누구인가? 조합된 회사 이름만 있다. 작가 미상이다. 작가 이름도 없는데 명품이 될 수 있겠는가. 광주를 대표하는 비엔날레 전시관 설계는 세계적 유명 건축가였으면 했다. 그러나 설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회사와 실무자만 있다. 건축가도 모르는 설계작으로 관심을 끌 건축물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건축가를 밝히고, 그 이름을 걸고 설계토록 하자. 이를 통해서라도 유명하게 하자.

비엔날레 전시관은 다르길 바랐다.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스토리텔링 소재가 되길 바랐다. 아쉽게도 과정과 결과물을 볼 때 이전의 어느 현상공모와 별다름이 없었다. 무늬만 '국제설계공모'라는 것을 했지, 그 속은 비슷했다. 왜 그럴까. 혹시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 왜(why)는 없고, 어떻게(how)만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위상과 현실, 가치와 의미, 향후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 '자산 만들기' 전략으로 건립기획을 진행했어야 했다. 전시관이 필요하니 '어떻게 만들지' 하는 수준 정도로 좋은 건축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둘, 목적(goal)은 없고, 목표(objective)만 있다.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고,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이다. 방향은 희미하고 대상만 선명했을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동네 수준이란 평이다. 목표만 보고 열심히만 했을까.

셋, 건축(architecture)은 없고, 건물(building)만 있다. 건축의 3가지 요소를 구조적 안전, 편리한 기능, 예술적 감탄이라고 한다. 구조와 기능을 충족하는 시설은 '건물'이라 하고, 여기에 '감탄'이 함께 있어야 '건축'이라고 한다. 건물만 생각하고 감탄을 주는 건축은 고려하지 못했을까.

광주에, 전국적 이목을 끈 건축자산이 있는가? 의재미술관(1999년 설계,2001년 준공), 아시아문화전당(2004년 설계,2015년 준공). 그 다음은... 지금부터라도 광주의 공공건축은 달라져야 한다. 왜 짓지, 어떤 목적을 가졌지, 감탄과 감동의 건축이 될지 계속 질문하면서 기획하고, 실천하고, 증명해야 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 쉬운 일 아니다. 그래도 광주가, 공직자가 10년에 하나쯤은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기 고

'희생의 숭고함'을 되새기다

염 세 훈
동강대 학군단 9기

낙동강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다. 1950년 8월 4일부터 그 해 9월 18일까지 벌어진 낙동강 전투는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열한 전투로 꼽힌다.

미래 직업군인을 꿈꾸고 있는 나는 동강대학교 제305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9기 후보생으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박2일의 전적지 답사에 참여했다. 이번 전적지 답사 첫 방문지는 대구 낙동강 승전기념관이었다. 낙동강 승전기념관은 '겨레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는 주제로 6·25 전쟁 당시의 의미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1층 전시관에는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에서부터 개전 초기상황이 자세히 설명됐다. 또 우리 국군이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치열하게 혈투를 벌여 승리한 후 UN군과 반격의 발판으로 삼았던 낙동강 전투를 당시 사진과 무기류, 설명 패널, 조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했다. 2층은 '끝나지 않은 전쟁, 그 폐허의 땅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한국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로 다시 쓰여졌다' 라는 주제로 전시장이 꾸며졌다.

6·25 전쟁에서 노획된 전쟁유물을 살펴보며 조국 수호의 정신을 기리고,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봤다. 추모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에서 6·25전쟁 때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 전사자들의 넋을 기렸다. 땅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조국을 지켰던 영웅들을 사진으로 만나 볼 수 있었고, 수백 개의 군번줄로 표현된 조형물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전시관 3층에서는 VR로 블랙이글 체험을 했다. 블랙이글 체험은 한국 공군 특수비행 팀인 블랙이글의 일원이 돼 곡예비행을 할 수 있다. 가상체험이지만 비행기로 낙동강 방어선을 정찰해보니 꽤 흥미로웠다.

이번 전적지 답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학도병 이야기이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급도, 군번도 없이 책 대신 총을 들고 교정을 떠났던 학도병들. 수많은 전투 속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꽃다운 청춘을 불살라야 했던 어린 학생들의 가슴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수많은 학도병 중 이우근 학도병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편지가 나의 심장을 울렸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십여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그들을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괴뢰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수 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님, 죽음이 무서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랑 형제들도 다시 한 번 못 만나고 죽을 생각을 하니 죽음이 약간 두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재검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의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벌컥벌컥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니 당시 학도병이 느꼈을 괴로움과 무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만약 학도병이었다면 어땠을까. 내 선택이 불효가 될지 모르지만 감히 어머니께 부탁드릴 것 같다. 아들이 아닌 조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매년 6월이면 우리는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의 숭고함을 떠올린다. 나는 최정예 부사관의 꿈을 갖고 동강대학교가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유치한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의 일원이 됐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굳게 다짐해왔다. 이번 전적지 답사에서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社 說

미흡한 5·18보고서 민간 차원 연구는 지속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1980년 5·18 이후 44년만에 국가 공인 5·18 진상보고서를 발간하고 4년여의 활동을 마감했다. 진상조사위는 그제 5·18 진상조사 종합보고서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자문서 형식으로 보고하고 자체 발간 보고회를 가졌다.

종합보고서는 5·18 관련 첫 국가 차원 보고서라는데 의미가 있다. 진상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결정을 했다. 5·18 당시 군·경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기록한 점, 계엄군이 저격수까지 운영하며 민간인을 '조준 사격'으로 학살한 점, 사망자 166명 가운데 총상 사망자를 135명으로 규명한 점 등은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발포명령자, 암매장·행불자 등 6건은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

사법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의 한계 때문에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4년여 활동에도 핵심 의혹에 접근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검증 안된 진술조서를 채택해 새로운 왜곡의 불씨를 남긴 점이다. "시위대가 무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추천 조사위원 3명이 낸 개별조사보고서가 그것인데 자칫 왜곡 세력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진상조사위의 종합보고서는 한마디로 약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혹에 접근하지 못했고 왜곡의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더 큰 과제를 남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완의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왜곡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민간 차원의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광주 지역사회가 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복합쇼핑몰 교통대책 시민 설득 가능해야

광주지역 대형 사거리 가운데 혼잡도가 가장 높은 광천동 일대의 교통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평상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주말·휴일의 교통 정체가 가장 심각한 광천동 일원에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상업시설과 수천 세대 아파트 건설이 수년밖에 남지 않아, 현 상태로는 교통 지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현재도 광천동 일대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유스퀘어, 대형 의료 빌딩들, 아파트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상습 교통정체를 빚는 구간이다. 여기에 오는 2028년까지 광천동에 신세계백화점 신축 확장, 임동에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문을 열 계획이어서 교통량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특급호텔과 4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다, 광천동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중인 것도 해결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가운데, 교통량 해소에 초점을 맞춘 도시철도 신설 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공사비 상승이 부담되고, 예산에 중점을 둔 경제성 있는 트램이나 간선급행버스는 도시철도에 비해 수송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광주시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상무역~광천동의 7.8㎞ 구간 도시철도 신설은 최적의 교통체계이지만 6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와 개통 후 적자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트램은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비가 절반 이하이지만 교통량 분산이 안 되며, 간선급행버스는 건설비가 더 저렴하지만 역시 수송량 분담률이 떨어진다. 광주시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예산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새로운 상업중심지역의 교통문제인 만큼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無 等 鼓

국가비상사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특히 삼가고 조심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부도'나 '비상사태' 같은 극단적인 단어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대한 트라우마 탓인지 비상사태 등의 용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유사한 용어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사전적 의미의 국가비상사태는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또는 전시와 사변 및 이에 준한 사태가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헌법은 제76조와 제77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긴급처분 명령권과 계엄선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발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따라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경찰권의 집중과 강화, 정부의 통제와 개입 등의 수단이 강구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예로는 1971년 12월 박정희에 의한 비상사태선언과 1979년 10월 대통령 시해 사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제5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987년의 헌법개정 때 이 조문이 삭제됐다.

이번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두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국가 소멸에 대한 위기상황에 오죽하면 국가비상사태를 언급했겠느냐는 공감이 있지만,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정도의 비장한 각오에서 나온 정책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알맹이가 없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커 보인다는 것이다.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해 나온 결과인 만큼, 국가 위기인 저출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을 안심시켜주길 바랄 뿐이다.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